



당뇨병과 더불어 40년의 세월

윤영길 /윤영길내과 원장, 한국당뇨협회 부회장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건강식품, 약, 민간요법을 보면서 조기 발견하여 이 방면의 전문가 말만 믿고 치료를 계속 받고, 음식조절과 운동요법을 익혀야 하는 것이 바로 당뇨입니다. 그러나 많은 환자들이 완치된다는 기적 같은 말에 속아 당뇨를 관리하는 바른길을 걷지 않고 옆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또 음식과 약을 기분 내키는 대로 먹고, 술과 각종 드링크제를 마시고, 인슐린과 각종 호르몬 주사를 마음대로 맞으니 의료진은 이러한 환자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당뇨로 인한 합병증은 몸의 구석구석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무관심한 환자를 보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당뇨병환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암이나 간장질환 또는 AIDS 같은 질병은 무서워하면서도 나이가 들면 소변에 당이 나오는 것을 누구나 다 나온다고 생각하며 당뇨병 초기에는 관리를 등한시 합니다. 임종에 가까워지면 자식도, 이웃도, 나라도 도울 수 없는 것이 병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뇨라는 병을 등한시하고 딱히 증상이 없다 하여 관리하지 않으며, 일부 현혹된 말에 속아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게다가 당뇨의 무서움을 알면서도 관리하지 않는 속수무책의 환자를 자주 보는 의사의 마음은 어찌 편할 수 있겠습니까.

당뇨병은 자기관리를 하지 않으면 훗날 가족과 의료진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도 버림받는 병입니다. 당뇨에 대한 대비를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당뇨병환자와 예비 당뇨병환자 여러분. 당뇨와 함께 한 그 세월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발 벗고 관리해 당뇨로 인한 두려움과 무심함으로 아픈뿐인 세월보다는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